

[천리순례] 마음으로 밀고끌고, 천리걸음 가볍다

노덕현 기자 | 입력 2021.10.11 21:44 수정 2021.10.12 08:35 댓글 0



가족이 함께 동참한 천리순례단원 눈길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순례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다른 순례와 달리 가족끼리 참여한 이들이 늘어 눈길을 끈다.



합숙훈련으로 인하여 동생을 먼저 순례단에 보낸 정해림 씨(사진 왼쪽)와 11일차 순례를 이어가고 있는 정유림 씨. 언니가 짐도 들어주며 자매의 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자매끼리 참여 “투닥대도 함께 정진 행복”

정해림 씨(27)는 지난해 자비순례를 완주하고 수곡사에서 신행활동도 열심히 하는 스포츠선수다. 이번 천리순례에는 동생 정유림 씨(24)와 함께 참여했다.

낮익은 모습에 같이 참여했는지를 묻자 정해림 씨는 “어제 왔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스노보드 국가대표인 정해림 씨는 스노보드팀 합숙으로 인해 처음 참가하는 동생 혼자 천리순례에 먼저 입재하게 했다.

뒤늦게 10일 합류한 정해림 씨는 “지난해 자비순례는 다했는데, 동생을 추천해서 먼저 보냈다. 동생에게 추천했더니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걱정도 됐는데, 와 보니 씩씩하게 잘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다소 가늘퍼 보이는 동생 정유림 씨는 사실 인터뷰가 힘들었다. 순례가 끝난 뒤엔 몸이 힘들다며 한차례 인터뷰를 사양했다. 내색을 하진 않지만 언니가 합류한 이후로는 부쩍 씩씩해진 모습이었다. 정유림 씨는 “언니가 없었을 때는 의지할 때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다른 언니들과 보살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언니가 막상 와도...”라며 “그래도 핸드폰 갖고 와라 물갖고 시키고 가방도 들어줄 사람 있어 좋다”고 웃었다.

여느 형제들과 같이 정해림, 정유림 씨 자매는 자매끼리 많이 여행을 다니진 않는다. 훈련에 매달리는 언니,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동생 둘 다 뜻이 맞아서다.

최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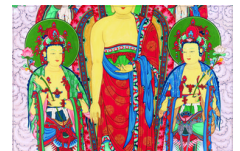
10.27법난41주년...군항발 짓밟힌 스님 법석 봉행



유네스코 네트워크 뮤직페스티벌 폐막공



조계사 불화모임 화엄회 회원전 개최



박은아 강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사호 실천가대상



과천시약사회,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도시원



인기뉴스

- 1 절터 복원·명상...‘메타버스’ 빠진 불교
- 2 교학후학양성 매진한 대강백 종광 스님
- 3 조계종 최고 품계 대종사명사 품서식 봉
- 4 ‘상월결사정신’ 청년포교로 전개
- 5 흥법사, 아미타대불 개금불사 회향

둘이 함께 마음이 맞아 자주 가는 곳은 어머니가 있는 수국사다. 이 두 자매는 매일 수국사에 가는 정도라고 했다.

정유림 씨는 “절반 이상을 왔고, 힘든 구간을 많이 이겨냈기 때문에 남은 구간도 힘차게 걸을 계획”이라며 “끝까지 완보 완주 할 수 있을 것 같다. 꼭 완주해서 마음의 수행을 다하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가족이 함께해서인지, 다소 지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표정에서는 밝은 기운이 넘쳐 보였다.



하정수 씨(사진 왼쪽)의 적극적인 모습에 딸들의 신심도 배가 되는 듯하다. 엄마의 기쁨이 본인의 기쁨이기도 하다는 박선민 씨는 엄마의 마음도 함께 치유되는 이번 순례가 소중하기만 하다.

모녀 함께 참여 “다음엔 첫째 딸 남친도”

봉은사 신도인 하정수 씨(56)는 둘째딸 박선민(31) 씨와 함께 이번 순례에 참여했다. 하씨는 인도와 스리랑카 성지순례를 첫째딸, 둘째딸과 함께 다녀왔다. 이번 천리순례를 함께 하자는 말에 딸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다.

많은 경험에도 이번 순례는 특별하다. 딸 박선민 씨는 “성지순례도 다녀왔지만 수행현장에 엄마와 같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제선센터에서 3000배 정진을 시도했다가 1080배에서 멈춰서 실패한 것이 엄마와 함께한 수행으로는 유일했다”고 말했다.

이번 순례에는 직장생활로 인해 첫째딸은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찌불자 가족답게 첫째딸은 남자친구와 함께 화엄사 순례 때 내려와 동참했다. 하 씨는 화엄사에서 인사를 맡은 딸의 남자친구까지 내년에는 같이 순례하자고 권유했고, 사위가 될 지도 모르는 딸의 남자친구도 좋다고 응답했다. 하 씨의 신심 넘치는 적극성에 이른바 불자가족의 무한 인연맺기가 진행되고 있다.

풍찬노숙에 어려움이 많을 만도 하지만 하정수 씨는 “반환점을 막 돈 현재, 서울에 가면 벌써부터 그리울 것 같다”고 했다. 하 씨는 “걷다보니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돌아보게 됐다”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 걷는 것 밖에 하는게 없는데, 항공할 정도로 대접을 받아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순례에 참여하기 직전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하 씨는 순례 현장에서의 마음씀으로 이러한 증상이 싹 사라졌다.

“걸으면서 이런 저런 인연을 만나고, 또 회주 스님의 원력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전생에 막 살지 않았나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은 인생도 딸들과 더 즐겁게 잘 살아야겠죠.”

엄마의 즐거움을 보며 딸 박선민 씨는 더욱 기뻐했다. 박 씨는 “걸으면서 생각이 많아진다. 모든 이들이 부처라고 하는데, 내가 깨달지 못한 것은 욕심이 많이 때문이 아닐까”라며 “엄마가 건강해졌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볍다. 마지막으로 불보사찰인 통도사가 남았는데 파이팅하면서 엄마와 나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현대불교NEWS] 불교중흥



[영상]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절터 복원·명상... '메타버스' Ⅱ



동갑내기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한 윤재웅 이세옥 부부. 50년 반려자로 묵묵히 서로를 밀어주고 이끌어 주는 존재다. 천리순례를 하며 부부간에 인연이 더욱 깊어 진듯 하다.

부부가 함께 참여 “부부의 연 더욱 깊어져”

기상시간이 늦어진 11일 새벽 4시, 순례단 숙영지 한켠에서 노트북을 켜고 시를 쓰고 있는 남편과 그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아내가 있었다. 바로 윤재웅 동국대 교수(60)와 아내인 이세옥 씨(60)다.

예비순례부터 자비순례, 이번 천리순례, 그리고 불자인연맺기의 장인 수미산원정대 등 윤 교수는 상월결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이다. 적극적인 남편의 활동 뒤에는 동갑내기로서 50년 지기 도반이기도 한 아내의 지원이 있었다.

윤 교수는 “단순한 걷기가 아니고 순례이다 보니, 마음 속에 간절한 것을 찾고 의미있는 삶으로의 방향찾기란 생각으로 아내에게도 권유했다”며 “존귀한 불법승 삼보를 기리는 순례는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교수 부부는 봉은사에서 진행된 수미산원정대에도 함께 1기로 참여했다. 이번 순례는 그때 함께 배운 불교를 스스로 느끼고 체화하는 과정이다.

이세옥 씨는 “그동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례 동참에는 엄두를 못냈다. 남편의 말에 20일 가량 약국을 비우게 되면 다른 약사를 쓰고 이런 복잡한, 일종의 욕심같은 것들을 아예 내려왔다”며 “올해 우리 부부가 둘다 60세인데, 사실 기념될만한 부부여행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부부처럼 해외여행 등을 가지 않고 이렇게 순례 결정을 내린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세옥 씨는 “하루 25km에서 30km를 걸으면 힘들기도 하고, 또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즐겁기도 하다. 마음에 작은 기쁨이 일어날 때 ‘아! 이것을 부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고 울컥하게 된다. 어떤 커다란 것을 얻기보다 조금씩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즐겁다”고 말했다.

윤 교수 부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50년이 넘는 도반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조에 속해있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순례에 임하고 있다.

“진짜 좋은거면 같이 좋은거죠. 부부끼리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다시 또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 >

#상월선원 #삼보사찰 #천리순례 #자승스님 #순례 #도반

관련기사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법보 가치 되새기다
삼보사찰 순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흡하다
천리순례 전야, 각계 격려 응원 이어져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국불교 순례사와 상월결사 순례 의미
천리순례단 경북서 경남으로... 지역 주민 응원 이어져
[천리순례] 함께 해서 고독하지 않은 수행의 길
[포교콘서트]2. 대중 소통의장 “불교 호감 높아자”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호국성사 앞에 펼쳐진 호국음악 한마당
삼보순례 자자, 참화와 중흥 기대교차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국민에 치유 희망 전한 화엄문화축제 성료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삼보사찰 천리순례] 韓불교 활력 불어넣는 희망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불교적 의미
천리순례,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포교콘서트]1. 불교중흥 위한 포교전당 열렸다
[포교콘서트] 3. “역량 결집, 새 포교 방안 마련”
상월결사, 호국성지서 '국난극복' 외치다
신심과 원력으로 재악산 사자평 넘다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이시각추천뉴스

국제불교연합, 미얀마 코로나 극복 자비나눔
세계 불교영화, 지역서도 선보인다
승광사 불교굿즈 ‘빨간 목탁’ 서울서 만난다
僧匠 색난 조성 불상진관사 태극기 ‘보물’ 지정
”승가화합’ 부재 94년 개혁... 종단 세속화가속”
학교수업심리치유...코로나 극복 논의 ‘보물’
연등회기원 '빈녀난타품' 영상으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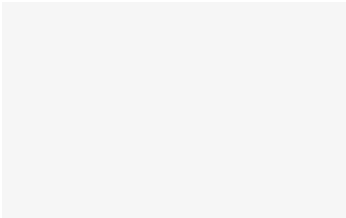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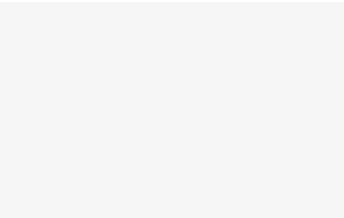
by

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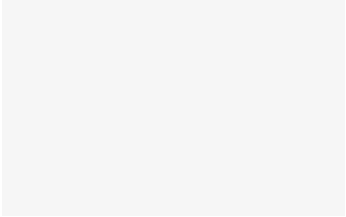
소유진 다이어트하고 살찌는 똥보균 박멸한 A양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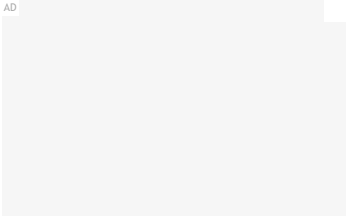
천리순례단 경북서 경남으로... 지역 주민 응원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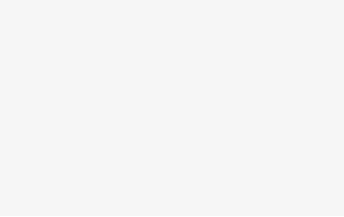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근현대 불교중흥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



레노버 Legion 5 Pro (16", Ge...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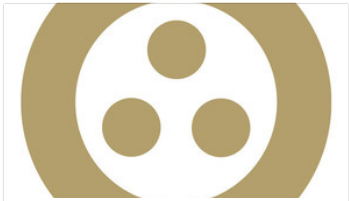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템플스테이 체험한 펭수, 묵언 수행에 성공했을까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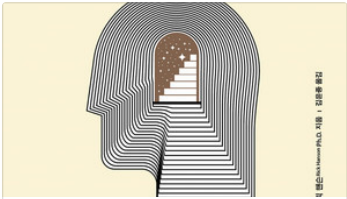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무문 흥법사 앞 도로공사 강제집행에 불상 '산산조각'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불과 두 세달 명상만으로도 뇌 바꿀 수 있어"

 현대불교

UPDATED. 2021-10-27 20:11 (수)

- 로그인
- 회원가입
- 비밀번호찾기
- 구독신청

 제보하기

- 아이디찾기
- 불편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오피스텔월드) 606
대표전화 : 02)2004-8200 | 팩스 : 02)737-0698
법인명 : 현대불교신문사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2 | 등록일 : 2007-03-09
발행·편집인 : 조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